

지방세 감면, 경영자금, 교류중단... 서울·경기도 비상대응

경제전쟁 전면전

중소기업 융자금 2000억 확대 피해 기업에 15% 저금리 혜택 매출채권 보험료의 50% 지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응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수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7일까지 업종별 전문가 15인 이내의 피해 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기업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을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한도를 5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100억원을 활용해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1.5%의 저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피해업종 기업에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억원을 투입해 '수출 신용보증보험 지원 기업'을 현재 1천건에서 3천건으로 3배 늘리고, 직접 피해 기업에는 재산세 고지 및 지방세 부과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서울시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이달부터 정부·대학·기업 공동조사를 통해 부품과 장비의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일본 도시교류 잠정 중단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988년 9월부터 도쿄와 자매 도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자매 결연의 전 단계인 우호도시로는 일본 내에 홋카이도(2010년 10월 결연)가 있다.

박원순 시장은 "경제보복이 우리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줄지 모르나 대한민국은 부당한 경제 조치에 굴하지 않고, 극복할 역량이 충분하다"며 "이번 사태를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산업과 기업의 피해

를 최소화하고 이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긴급경영특별자금 지원 및 상환유예 확대, 산업 피해 조사, 대체 물량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기도형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R&D)과 생산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긴급경영특별자금 지원 대상은 종전 3개 품목 규제 관련 기업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확대하며 중앙부처,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기업현장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모색한다.

산업피해 실태조사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해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 정책을 지원한다.

경기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중점 규제 대상으로 예상되는 1120개 물자 품목에 대해 수입의존도 등의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체기업 조사와 수입선 변경 지원을 통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비 지원, 제품 개발 및 수요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모색한다.

장기 대책으로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센터(가칭), 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가칭) 등을 만들어 국산화 연구·개발을 돕는 한편 소재부품 평가 플랫폼을 구축해 성능인증 테스트베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김현정·김승열 기자 hjk1@metroseoul.co.kr

활용도 낮은 공간정보... 정책 개선 시급

서울시, 공간정보 설문조사 실시 접근성·소통·만족도 2.8점 불과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공간정보 데이터(실내지도서비스,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실제 활용도가 낮아 공간정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서울시 공간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담당 주무관 등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시스템 활용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참여·서비스 관련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시는 통계데이터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상황대응과, 도로관리과 등 23개 부서에서 항공사진 업무시스템, 실내공간정보 시스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등 45개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시민참여 및 서비스 ▲데이터 ▲시스템 ▲내부업무 등 4개 분야 총 13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민참여·서비스 부문에서 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서울시와 시민들 간 소통이 각각 2.8점으로 집계돼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이석민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시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것으



'서울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본 서울시청 모습. /서울시

로 판단된다"며 "외부적으로는 시민들이 서울시의 많은 공간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공개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공간데이터의 최신성이나 업무와의 정합성이 떨어져 실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주요 공간정보로는 실내지도서비스,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항공사진 서비스 등이 있다.

실내지도서비스는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실제와 똑같은 내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의 다양한 시설 정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재난 시 대피경로, 건물 내 길안내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실내공간정보 구축 뉴딜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작년 기준으로 시청 4개소, 공공건축물 80개소, 지하철역사

202개소, 지하상가 18개소 등 총 304개소 건축물의 실내 공간정보 데이터가 구축돼 있다.

서울연구원은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비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구축해 개별 역량, 경험치, 숙련도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간정보를 표준화해 데이터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구조물 안전성의 기초가 되는 지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항공레이더 측량 기술을 이용해 서울시 전역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구원은 3차원 공간정보를 실내공간정보와 연계하면 3차원 실내의 공간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현정 기자

"문화비축기지서 아름다운 밤 보내세요"

서울시 '달빛사이 탱크 탐방' 운영

서울시는 오는 9~10일 문화비축기지서 야간 개장 행사인 '달빛사이 탱크 탐방'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 프로그램은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영화를 즐기는 '문화탱크 산속영화관', 전문해설사와 탱크를 야간순찰하며 체험하는 달빛사이 탱크탐방 '기지야행', 야간 물놀이 '알로하! 야간기지' 등으로 구성됐다.

산속영화관에서는 '쥬스'와 'E.T.'가 상영된다. 기지야행은 41년간 1급 보안 시설이었던 석유비축기지 시절에 24시간 안전을 위해 밤낮을 쉬지 않고 순찰했던 근로자를 생각하며 탱크 곳곳을



문화비축기지 야경. /서울시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 파라솔존과 피크닉존, 선베드존 등의 쉼터를 운영한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축기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전국서 창업할 청년들 찾습니다"

초기자금 2000만원 등 지원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8개 시·군에서 창업할 청년 15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8개 지역은 강원 춘천·영월, 경북 의성·상주, 충남 논산·금산, 전북 완주·군산 등이다.

시는 '넥스트, 로컬 : 서울청년 로컬의 미래'를 UP(業)하다' 사업 참가자에게 ▲기본교육 ▲각 지역에 맞는 사업 아이템 발굴 ▲사업모델 시범운영기

간 초기자금 2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만 19~39세 서울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마케팅·유통, 지역산업 및 관광문화자원, 복지·정보 서비스, 지역 재생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업 참가자들은 지역 내 창업자와 활동가, 관계 전문가,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아이템을 발굴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반도체 장비 국산화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

1등 최대 500만원 등 상금 지급

경기도가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전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5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공모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

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반도체 소재 장비 국산화 및 해외 투자유치 아이디어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경기도 미취업 청년 지원 방안 ▲생태환경 보전과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아이디어 등 4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

적이고 구체적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참가자격은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팀)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아이디어로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원 등 7개 팀에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서울시, 저출산 시책 대회서 우수성 인증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 우수상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이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해당 사업을 올해 12개구에서 추진하고 내년에 전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난임지원을 강화해 '난임-임신-출산 공공서비스'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다.

시의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은 전국 최초의 '성인지적 임신준비 프로그램'이다. 부부가 함께 건강검진을 받아 임신 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공공서비스다.

/김현정 기자